

# 목포대 등 국립대·정부 연구소 까지 식품 위생검사 '엥터리'

## 식약청, 광주·전남 등 21곳 적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일선에서 방어해야 할 식품위생검사기관 세 곳 중 한 곳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부실검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공익성이 생명인 목포대 등 국립대 소속 검사기관뿐 아니라 광주·전남연식품 공업협동조합과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어 식품위생검사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61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한 결과,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위반 내용을 보면, 목포대 식품산업지역혁신센터(무안군)와 광

주·전남연식품 공업협동조합(광주 북구) 등 8곳은 하지도 않은 시험을 했다면서 가짜 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다.

특히 목포대는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지 않았고, 식품법에서 정한 검사방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검사업무를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대와 한국식품연구원(경기도 성남시), 경북테크노파크 대구한 의대 특화센터 식품위생검사소(경북 경산시) 등 검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7일~1개월

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중국 고추가루 국산 둔갑 학교급식 납품 업자 구속

중국산 고추가루를 친환경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0일 "중국산과 국산 고추가루를 혼합해 원산지를 속여 순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재료로 15.35t(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을 납품한 고충군 소재 H영농조합 김모(44)씨를 적발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기통기자 song@

# "임시이사 파견 후 정상화 안장관 발언 수용 못한다"

## 조선대 비대위

조선대는 10일 오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 및 전경영진 복귀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열고, 정부에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임시이사 재파견 후 정상화 방침 발언은 대학 정상화의 심의·결정주체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또 "조선대는 전경영진이 1988년 퇴진한 이후, 안정적으로 발전하자 교과부가 임시이사체제 대신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것을 먼저 요구해와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1월 정상화 방안을 교과부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정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교과부가

옛 재단 인사 등을 복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9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선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 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조선대 측의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조선대는 조만간 비대위 산하 모든 단체가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안 장관의 임시이사 재파견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조선대는 1988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6월말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 이사 부존재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학 측은 즉각적인 정이사 선임을 요구해왔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9분 해질 18시 36분 달돋이 18시 56분 달질 06시 32분

**간지러운 봄 햇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지역	최저/최고	기온	풍향	풍속	파고	밀물	썰물
광주	4/14	2/14	북~남동	1.0~2.0	0.5~1.5	02:05	07:25
목포	4/14	2/12	북~남동	1.0~2.0	1.0~2.0	14:34	19:48
여수	4/14	4/13	북~남동	1.0~2.0	1.0~1.5	09:18	02:59
완도	4/14	1/13	북~남동	1.0~2.0	1.0~1.5	21:36	15:19
구례	4/14	-2/15	북~남동	1.0~2.0	1.0~1.5		
해남	4/14	-1/13	북~남동	1.0~2.0	1.0~1.5		
장흥	4/14	-1/14	북~남동	1.0~2.0	1.0~1.5		
고흥	4/14	0/15	북~남동	1.0~2.0	1.0~1.5		
순천	4/14	1/14	북~남동	1.0~2.0	1.0~1.5		
영광	4/14	0/11	북~남동	1.0~2.0	1.0~1.5		
진도	4/14	1/13	북~남동	1.0~2.0	1.0~1.5		
전주	4/14	-1/13	북~남동	1.0~2.0	1.0~1.5		
남원	4/14	-3/15	북~남동	1.0~2.0	1.0~1.5		
옥산도	4/14	3/9	북~남동	1.0~2.0	1.0~1.5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4/14	10/12	-1/5	-2/11	1/14	7/16

# "정광학원 비리 검찰서 수사하라"

## 전교조 광주지부·정광학원 교사들 강력 촉구

정광학원의 교원 채용 비리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6명에 이르는 교원의 순위를 뒤바꾸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 때문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0일 '정광학원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 교육청이 비리를 밝혀내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정광학원의 비리를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또 정광학원의 비리를 계기로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와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정광중·고 분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적 조작 몇 건을 밝혀내는 데 그친 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성적 조작은 곧 금품거래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도, 계좌추적권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정광중·고 분회는 특히 "그동안 이사회에서 결정된 교감 및 교감 연수 대상자의 인사도 위반 사례가 많은 만큼 재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교육을 견제·감시하는 시 교육위원들도 정광학원의 감사 조치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재용 부정만으로 고위 간부 4명을 모두 해임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더 큰 부정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번 사태를 철저히 파헤쳐 사학 비리를 뿌리 뽑고, 연루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제보가 들어온 것도 없는 만큼 수사 의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농촌학교 학생 전원 무상급식

광주지역 도심 속 농촌학교 학생은 이번 달부터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교육청은 10일 "14개 초·중학교 학생 1천 20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지산·광주동·하남·임곡·동곡·삼도·평동·분림·대촌중앙·무하·송학초 등 초등학교 11곳과 대

촌·평동·임곡중 등 중학교 3곳이다. 시 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을 위해 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상급식으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연간 36만원, 중학생은 45만원 정도의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금남로에 팬지가 '활짝' 봄 기운이 완연한 10일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금남로 주변 화단에 팬지 등 봄맞이 꽃을 심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지하철역에 '환경테마관'

### 학동·증심사입구역

광주 지하철역에 '환경테마관'이 들어선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는 10일 "저탄소 녹색도시를 이끌어가는 환경 지하철로 거듭나기 위해 동구 '학동·증심사입구역'에 환경테마관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의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 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유관기관과 환경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올 상반기

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테마관은 제1공간 '함께 하는 탄소 저감 실천', 제2공간 '지하철 이용과 탄소저감', 제3공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른다' 등 3가지 주제관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전 열차에 '저탄소 실천 포스터'를 부착하고 자전거 무료 대여 사업 확대, 전동차 내 조명 LED 교체, 역사 내 공기정화식물 비치 등 환경지하철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시, 다문화 가정 인권침해 실태 점검

광주시가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달중 인권위와 시민, 종교계, 학계 등 각계 인사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다문화 가정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박광태 시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만큼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

이나 학교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실태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민간 중심의 특별 기구를 발족시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모두 2천807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이 중 일부 가정에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해 센터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상해 항주 소주4일 (M.O)  
**295,000**

북경 3박4일 (OZ)  
**388,000**

북경 4박5일 (OZ)  
**419,000**

제주 2박3일 대리지(연락)  
**88,000**

선박+항공 **138,000**

카멜리아 3박 4일 - 부산출도착  
**179,000**

**279,000**

**389,000**